가뭄 · 이상기온 피해 최소화

수확기 인력 · 농기계 등… 농진청, 봄철 선제적 영농지원 대책 수립

봄철 영농시기를 앞두고 가뭄 지속과 낮밤의 큰 기온 차이로 인한 농작물 생육 부진이 우려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영농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7일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봄철 영농지원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농진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상황 공유 및 소속기관·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인 봄철 영농을 위한 선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재해 발생 전 현장 문제 해결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농진청은 우선 기상(가뭄·고온·저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량작물, 과수, 채소, 인삼 등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구성해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과 작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토양수분 증발 억제와 생육 불량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병해충 예방과 기상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점검(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작목별·영농시기별 기술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강수 부족에 따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충남, 전남·북, 경남, 광주 등 맥류 주산지역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삭이 패는 시기 전·후에 발생하는 진딧물, 붉은곰팡이병, 깜부기병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선제적 방제, 생육 전반에 관한 핵심 영농기술 지도를 통해 밀 안정생산과 품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늘과 양파의 경우에, 지난해 수확시기(5~6월)에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했고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어 주산지를 중심으로 기계수확 확산과 일손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 마늘·양파 수확 시 가장 많은 노동력이 드는 줄기 절단, 굴취, 작물 수거 과정을 기계로 작업하는 연시회를 열고, 농작업 효율이 높은 기계수확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일손 부족 농가에 대한 인력 지원을 위해 중앙(농촌진흥청·소속기관)-지방(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이 참여하는 일손 돕기를 확대하고, 농촌진흥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수확기계를 활용하여 농가 수확작업을 별도 지원한다.

그밖에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사용 불편 해소와 적기 영농 실현을 위해 도(道)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농업기계 순회 수리와 안전 사용을 위한 농업인 교육을 강화한다. 농업기계 안전전문관과 품목별 담당자로 구성된 순회현장지원팀을 파견해 고장 진단과 부품교환 등을 실시하고, 농업인의 자가 점검·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홍 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영농현장 동향 수집과 영농현안 사전 예측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 문제 해결형 영농종합지원대책'이 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원?경북 일대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해당지역 농가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위한 기술 지원방안 추진과 주민 위로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최대희 기자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7일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봄철 영농지원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기상 피해 최소화 등 부문별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국 최초 성과평가 6년 연속 '최우수'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최·주관한 전국 17개 시·도 '연구개발지원단'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정책기획, 연구 개발 조사·분석, 연구 개발 기획·평가관리, 정보 구축제공, 네트워크 등 5가지 분야로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인센티브로 국비 2,500만 원도 확보했다.

특히, 전북도 연구 개발 분야의 전주기 프로세서 체계 고도화를 위해 전북테크노파크 연구 개발 기획관리 전담팀을 구성한 첫해에 이룬 이번 성과로 향후 전북도 연구 개발 기반의 자생적 혁신생태계 전망을 더욱 밝게 했다.

지원단은 전북과학기술종합계획에 근거한 산업·사회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추진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성·운영됐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기술 성과가 구체적이고 우수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공동과제 협업 및 지역 정책기획, 조사분석 등 연구개발지원단 본연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아낌없는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적절했다는 평가다.

/유호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7일 전주지방법원의 새로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전주법원지점을 개설하고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농협 제공〉

'강한 소상공인' 키운다 | 전북중기청, 성장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치생산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7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작자, 창업기업, 소상공인간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 소량·다품종의 희소가치를 생산하는 역량있는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선정 및 지원절차는 약 8개월에 걸친 단계별 경쟁방식의 유망소상공인을 선별해 가능성과 성과를 기반한 사업 고도화 자금 최대 1억원 지급으로 이뤄진다. 우선 서류·면접평가로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팀빌딩을 실시해 100개 팀을 선발하고, 약 3개월간의 교육·멘토링 과정을 통해 30개 팀을 선정, 이들에게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후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피칭평가를 거쳐 10개 팀을 최종 선발해 이들에게는 스케일업 자금 최대 5천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 분야는 ▲창작자 협업형(제품·서비스 디자인, 패키징 고도화 등) ▲창업기업 협업형(제품·서비스 플랫폼화, 신제품 개발 기술 등) ▲소상공인간 협업형(다른 업종 소상공인과의 협업으로 매출증가 및 판로 확대 등)이며 해당 분야별 창작자, 창업기업도 함께 모집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희망분야를 선택하면 운영기관에서 분야별 전문멘토를 매칭시켜 팀 구성을 지원하며, 이미 팀 구성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다. 운영기관에는 역량있는 전문 액셀러레이팅 기관이 대거 참여하며, 이들은 사업운영 외에도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참여 소상공인에게 보육공간 제공, 직·간접 투자, O2O(O2O)플랫폼 입점 등의 다양한 후속지원도 하게 된다.

한편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이 담긴 사업공고는 '2022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공식 누리집(www.2xe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재경 청장은 "전북지역의 역량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을 중소·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전북도,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특례 보증 확대

1020억원 규모로 전년비 160억 증액

전북도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특례 보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농협, 신한, 하나, 국민, 전북, 우리은행과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조건 완료 금융회사부터 1,0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특례 보증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과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특례 보증 사업' 확대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전년도에 비해 지원 규모를 160억 원 확대하고, 금융회사별 운용 배수를 늘려 매출액 감소 보전과 임차료 지원 등 금융지원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전북도에서 3년간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자금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실제 금리는 연 1.6%내외로 부담을 최소화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감소기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임차료 납부지원 등 3가지 분야다.

업체당 최대 2,000~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증기간은 8년이다.

특례보증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관할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063-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석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최근 장기화된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최적의 금융서비스 제공 앞장"

NH농협은행 전주법원지점 개점… 800억원대 공탁금 관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7일 전주지방법원의 새로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전주법원지점을 개설하고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작년도 공개경쟁을 통해 전주지방법원을 포함한 정읍지원, 남원지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등 총 4곳의 공탁금 관리은행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주법원지점을 시작으로 4월과 5월 정읍지원, 남원지원 등을 순차적으로 개점할 계획이다.

이번 개설한 전주법원지점은 2026년까지 800억원대 공탁금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법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여수신 업무 및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경민 본부장은 "농협은행이 갖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안정적인 공탁금 관리업무와 지역주민의 금융이용편의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원금고로서 전주지방법원과 전북도민을 위한 최적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는 지역사회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탄소기업 국내 · 외 진출 지원

탄소산업진흥원, 25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접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방윤혁)은 7일부터 25일까지 '전북 탄소기업 국내·외 밸류체인 구축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접수받는다.

7일 진흥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내·외 수요-공급 기업 간 매칭 지원, ▲국내·외 진출 지원, ▲수출입 패키지 지원 형태로 운영되며, 전라북도에 소재한 탄소관련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다. 특히 도내 기업의 국내외 진출을 통한 밸류체인 확보를 위해 국내외 전시, 비즈니스 미팅, 디지털 마케팅, 수출입 물류비 및 샘플구매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이 직접 해외 진출 프로그램 제안도 가능해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맞춰 진흥원은 수요-공급 기업 간 매칭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기업 소개자료 제작에서부터 해외 수출상담 및 멘토링, B2B 온라인 거래 알선,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하며, 국내외 진출, 수출입 패키지 지원에 총 2억5,500만 원을 투입해 총 12개 기업에 각각 2천만 원씩 지원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접수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업활성화실(063-219-3683)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희 기자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1천억원 달성탑 수상

'연합사업 판매 달성탑' 올해 최초로 제정 도내에서는 '최초'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021년 연합사업판매 1천억 원을 달성한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백남정)에 달성탑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사업 판매 달성탑'은 농협중앙회에서 올해 최초로 제정돼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최초로 수상했으며, 전국적으로도 5개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만이 수상했다.

이번 수상한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13년 남원 관내 5개 농협이 공동출자해 설립된 이래 남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생산자 조직화를 공고히 하는 한편 체계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8년 만에 연합사업 판매 1천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농식품부가 주관한 2021년 산지유통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조직에 선정됐으며, 전북도의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실적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조직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연합사업 판매 1천억 원 달성을 축하하고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전라북도, 남원시에도 감사를 전한다"며 "전북농협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다른 시군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전라북도 연합사업 판매 5,000억원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국민 목소리 대변 시민위원들 모여라'

새만금개발공사, '제1기 시민참여 혁신단' 10명 모집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 이하 공사)는 국민의 시각에서 경영 전반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2022년도 제1기 시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31일부터 금년 말까지 활동하는 제1기 '시민참여혁신단'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공사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의견 제시, ESG 경영의 신규과제 발굴 등 공사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공사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외부위원 10명이다. 지원방법은 공사 홈페이지(www.sdcaar.kr) 해당 공지사항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8일까지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강병재 사장은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새만금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